

#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4일 웨이보 공개)

## 이 심리상담(心理相談) 기관(機關)은 믿을 만할까? (왕호응 씀)

이것은 제자(弟子)가 나에게 물어보았던 사례(事例)이다. 이 심리상담 기관이 믿을 만한지를 물어서 점(占)쳤다.

계묘년(癸卯年) 임술월(壬戌月) 임술일(壬戌日) 을사시(乙巳時) (순공(旬空): 자축(子丑))에,

산천대축(山天大畜)이 풍택중孚(風澤中孚)로 변(變)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壬戌月 壬戌日 乙巳時

八卦

山天大畜(艮土宮) 之 風澤中孚(艮土宮)

官辛卯 | 白官丙寅 | 伏官丙寅  
乙花 德地 德地

父辛巳 | 蛇財丙子空 || 應伏財丙子空  
乙亡 閏德馬災 閏德馬災

世兄辛未 || 勾兄丙戌 || 伏兄丙戌  
花鞍 德蓋 德蓋

兄丁丑空 || 朱兄甲辰 才 伏孫丙申  
天 馬月 帳德馬

官丁卯 | 青官甲寅 | 世伏父丙午  
乙花 地 德將

應父丁巳 | 玄財甲子空 | 伏兄丙辰  
乙亡 閏馬災 德馬月

遊魂卦

空亡: 子丑

卦身: 兄丑

世身: 三爻

세효(世爻)는 자신(自身)이 되고, 응효(應爻)는 상대방(相對方)이 된다. 처음 볼 때는 응효가 발동(發動)하여 세효를 생(生)하니 매우 좋아 보인다. 그러나 응효가 일월(日月)에게 극(剋)되니, 휴수(休囚) 무기(無氣)하며, 발동하여 화절(化絕)하고, 공망(空亡)으로 현무(玄武)와 등사(騰蛇)에 임(臨)하니, 현무는 기만(欺瞞)과 속임수가 되고 등사는 허위(虛偽)와 가짜가 되며, 또한 간효(間爻)가 발동하여 응효가 입묘(入墓)하니, 세효를 생할 수 없어, 이 기관은 전혀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

뒤에 확인(確認)해 보니 과연(果然) 사기(詐欺) 기관이었으며, 줄곧 비용(費用)을 납부(納

付)하라고만 요구(要求)하여, 자격(資格) 요건(要件)과 허가(許可) 유무(有無)를 조회(照會)해 본 결과(結果), 이 기관은 가짜로 드러났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4일 웨이보 공개)**

这个心理咨询靠谱吗？（王虎应写）

这是徒弟问过我的一个案例。占问这个心理咨询机构靠谱吗？于癸卯年壬戌月壬戌日乙巳时（旬空：子丑），得山天大畜之风泽中孚。

|    |      |        |      |
|----|------|--------|------|
| 白虎 |      | 官鬼寅木'  |      |
| 螣蛇 |      | 妻财子水×应 | 父母巳火 |
| 勾陈 |      | 兄弟戌土"  |      |
| 朱雀 | 子孙申金 | 兄弟辰土○  | 兄弟丑土 |
| 青龙 | 父母午火 | 官鬼寅木'世 |      |
| 玄武 |      | 妻财子水'  |      |

世爻为自己，应爻为对方。初看应爻发动生世爻，很好。但是应爻被日月克，休囚无气，发动化绝，空亡值玄武螣蛇，玄武为欺骗，螣蛇为虚假，又间爻发动，应爻入墓不能生世爻，此机构不靠谱。

后果然是诈骗机构，一直让缴费，查阅资质后，此机构为假的。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4일 웨이보 공개)

### 소강절(邵康節) 전기(傳奇)

#### 제4장 책상(冊床)을 떠나 멀리 유람(遊覽)하며, 산하(山河)를 두루 겪고 세상(世上)의 변화(變化)를 깨닫다

북송(北宋) 천성(天聖) 8년(1030년), 소옹(邵雍)은 나이 바야흐로 21세(歲)였다. 이때의 그는 공성(共城)에 정착(定着)한 지 이미 10여 년에 이르러, 소년(少年)의 티를 완전(完全)히 벗고 강인(強韌)한 기상(氣象)이 맑고도 드높았으며 가슴속 만권(萬卷)의 시서(詩書)를 종횡(縱橫)으로 꿰뚫고 백가(百家)의 의리(義理)를 하나로 통달(通達)하고 있었다. 10년 동안 농사(農事)지으며 글을 읽고, 10년 동안 사색(思索)에 잠겼던 세월(歲月)은 그로 하여금 세속(世俗)의 국한(局限)된 학문 다스림의 굴레를 떨쳐버리게 하였으나 도리어 학문의 한계(限界) 속에 깊이 침잠(沈潛)하게 만들었다. 서책(書冊)에 기록(記錄)된 것은 모두 옛사람들이 남긴 말이며 지나간 과거(過去)의 이치(理致)일 뿐인데, 천지(天地)의 운행(運行)하고 변화(變化)하는 기틀은 한 순간(瞬間)도 새로워지지 않음이 없고 세상일의 변천(變遷)은 잠시(暫時)도 멈추지 않으니, 죽은 종이 뭉치만을 고수(固守)하는 것은 결국(結局) 남의 찌꺼기를 쬐는 하등(下等)의 학문에 떨어지는 일이었다. 소옹은 종이 위에서 얻은 지식(知識)은 끝내 알을 뿐임을 깊이 알고 있었으니, 세상의 가장 높은 대도(大道)는 서재(書齋)의 필묵(筆墨)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하(山河) 대지(大地)와 고금(古今)의 흥망(興亡), 백성(百姓)들의 삶과 불꽃 같은 세상사 속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에 그는 부모(父母)님께 작별(作別)을 고(告)하고 간단(簡單)한 행장(行裝)을 꾸려 책상자를 짊어지고 칼을 찬 채 의연(毅然)히 먼 유람의 길에 올랐으니, 이름난 명산(名山)과 큰 하천(河川)을 두루 거치고 옛 유적(遺跡)을 방문(訪問)하여 몸소 세상의 거친 변화와 대도를 깨닫고자 결심(決心)했다.

길을 떠나기 전날 밤, 소고(邵古)는 초가(草家)집에 단정(端正)히 앉아 아들에게 훈계(訓戒)의 한마디를 당부(當附)했다. 반평생(半平生)을 은거(隱居)하며 지낸 소고는 세속의功名(功名)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 아들의 지향(志向)이 비범(非凡)하여 결코 벼슬을 구하거나 재물(財物)을 탐(貪)할 무리가 아님을 깊이 알고 있었으므로, 공명을 권(勸)하거나 안위(安危)를 당부하는 말은 단 한 구절(句節)도 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 말했다. “배움은 마음속에 있고 도는 발밑에 있다. 산하는 고금을 감추고 있고 풍우(風雨)는 심성(心性)을 단련(鍛鍊)하는 법이니, 길이 멀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간고(艱苦)함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학문이요 겪는 바가 모조리 수행(修行)이다.” 몇 마디 되지 않는 문장(文章)이 막힘없이 활달(豁達)하여 소씨(邵氏)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농사짓고 글 읽으며 도를 깨닫는 가풍(家風)에 꼭 들어맞았다. 소옹은 머리를 숙여 아버지께 절하며 가르침을 정성(精誠)스럽게 마음에 새기니 가슴속이 한없이 굳건해졌다. 그는 이번 길을 떠나는 것이 학문으로 이름(名聲)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權勢)가나 귀족(貴族)과 교제(交際)하려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오직 중화(中華)의 산하를 밟고 역사책(歷史冊)의 고적(古蹟)과 대조(對照)함으로써 천도의 흥쇠(興衰)를 증명(證明)하고 스스로 학식의 마지막 모자란 부분(部分)을 채우고자 할 뿐이었다.

그 무렵 북송은 평화(平和)로운 성세(盛世)를 맞이하여 온 나라가 편안(便安)했고 전쟁(戰爭)의 분란이 없었으며 산하가 평온(平穩)하게 안정(安定)되어 있었으니, 마침 소옹이 멀리 유람할 수 있는 절호(絶好)의 조건(條件)을 제공(提供)해 주었다. 그는 보통(普通)의 유학(儒學) 선비들이 지닌 화려(華麗)하고 떠들썩한 습관(習慣)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4일 웨이보 공개)

을 깨끗이 버리고 수레와 말을 타지 않았으며 시종(侍從)도 거느리지 않은 채, 배 옷 한 벌과 시서 한 권, 짧은 칼 한 자루만을 지니고 맨발로 걸어갔다. 길을 가는 내내 가벼운 행장으로 소박(素朴)하게 다니며 거친 음식(飮食)을 먹고 들판에서 잠을 잤으며, 성품(性品)대로 가고 머물 뿐 정(定)해진 일정(日程)이 없고 억지로 찾아가는 곳도 없었다. 산(山)을 만나면 산을 관찰(觀察)하고 물을 만나면 물을 살폈으며 옛 터를 만나면 흥망의 자취를 방문하고 시골 백성을 만나면 풍속(風俗)을 물었으니, 가장 진실(眞實)하고 순수(純粹)한 방식(方式)으로 이 중화 대지의 만 가지 기상(氣象)을 온몸으로 안았다.

소옹이 멀리 유람한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삼진(三秦)의 옛 땅인 관중(關中)이었다. 이곳은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융성(隆盛)했던 당(唐)나라의 뿌리이자 13개 왕조(王朝)의 옛 도읍(都邑)터로, 일찍이 천하 문맥(文脈)과 왕기(王氣)가 한데 모이던 자리였다. 옛날 대진(大秦)이 천하를 통일(統一)하여 산하를 웅거(雄踞)했고, 한나라와 당나라의 성세에는 만국(萬國)이 조정에 들어와 문풍(文風)이 성(盛)하고 무공(武功)이赫赫(赫赫)했다. 그러나 천년(千年)의 세월(歲月)이 흐르고 시대(時代)가 바뀌어 북송 시절에 이르니, 관중의 옛 도읍은 이미 성세의 영광(榮光)을 벗어던진 지 오래되어 궁궐(宮闕)은 부서지고 고적(古跡)은 황폐(荒廢)해졌으며, 옛날의 번화(繁華)했던 거리는 평범(平凡)한 시골길로 변하고 높았던 궁궐 담장은 오직 부서진 벽돌 더미로만 남아 있었다. 소옹은 장안(長安)의 옛 성터 위에 서서 멀리 연면(連綿)히 이어지는 진령(秦嶺)산맥을 바라보고 가까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위수(渭水)를 관찰하며, 부서진 기와 조각들이 거친 풀숲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보고 가슴속에 온갖 감정(感情)이 교차(交叉)함을 느꼈다.

그는 손에 역사책을 쥐고 고적과 대조하며 고금의 변천을 하나하나 증명했다. 진나라는 관중의 험준(險峻)하고 견고(堅固)함에 의지(依支)하여 천하를 통일(統一)했으나 폭정(暴政)으로 인(因)해 빠르게 망(亡)했고, 한나라는 진나라의 제도(制度)를 이어받아 백성들을 쉬게 함으로써 성세가 길게 이어졌으나 끝내 외척(外戚)과 환관(宦官)의 난(亂)로 뒤집어졌다. 당나라가 개방적(開放的)이고 포용적(包容的)이어서 만국(萬國)이 마음을 바쳤고 극성(極盛)할 때 천하를 내리 보았으나, 안사(安肆)의 난(亂)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쇠패(衰敗)하여 변화함이 다 떨어져 버렸다. 한 왕조가 흥성함에는 반드시 덕(德)을 쌓고 힘을 축적(蓄積)한 원인(原因)이 있고, 한 왕조가 전복(顛覆)됨에는 반드시 도를 잃고 이치에 어긋난 결과(結果)가 있었다. 산하에 예전 그대로인데 인간(人間) 세상의 일은 완전히 바뀌었으니, 산천(山川)의 형세(形勢)는 일찍이 바뀐 적이 없으나 오직 인간 마음의 다스림과 어지러움, 세상의 흥망성쇠만이 가고 오며 순환(循環)할 뿐이었다. 이 순간(瞬間), 책 속에 얼어붙어 있던 다스림과 어지러움의 역사적(歷史的) 사실(事實)들이 눈앞에 살아 숨쉬는 거대한 변화로 변하니, 소옹의 마음속이 활짝열리며 흥 망에는 정해진 운수(運數)가 있고 천도는 순환한다는 깊은 의리를 은연중(隱然中)에 깨닫게 되었다.

관중에서 나와 그는 서(西)쪽으로 농우(隴右)를 달리고 동(東)쪽으로 제루(齊魯)로 가며, 남(南)쪽으로 장회(江淮)를 건너고 북(北)쪽으로 하삭(河朔)을 바라보며 중화의 핵심(核心) 북판 땅을 두루 유람했다. 태산(泰山)의 꼭대기에 올라 오악(五岳) 독존(獨尊)의 우뚝 솟은 기상(氣象)을 바라보며 천지의 높고 낮음과 질서(秩序)가 정연(整然)한 이치를 체득(體得)했고, 황하(黃河)의 나루터에 이르러 아홉 굽이 황하가 동쪽으로 세차게 흘러가며 거친 모래와 진흙을 함께 쓸어내리는 도도(滔滔)함을 보고 대도가 만물을 포용하고 쉬지 않고 생겨나는 생생불식(生生不息)의 모습을 깨달았다. 곡부(曲阜)의 성(聖)스러운 고을에 들어가 공자(孔子)의 유적(遺跡)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4일 웨이보 공개)

에 절하며 유학의 기풍(氣風)이 천년을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것을 관찰하고 성현(聖賢)이 가르침을 세워 백성의 마음을 교화(教化)한 만세(萬世)의 공덕(功德)을 명백(明白)히 알았으며, 하락(河洛)의 옛 땅을 방문하여 하도(河圖)와 낙서(洛書)가 발생(發生)한 근원(根源)을 탐색(探索)하고 상고(上古) 시대 역학(易學)의 뿌리 맥락(脈絡)을 추적(追跡)했다.

명산대천(名山大川)과 고적의 옛터에 이를 때마다 소옹은 매번 오랫동안 발길을 멈추고 깊은 사색과 고요한 깨달음에 잠겼다. 높은 자리에 올라 천지의 광활(廣闊)함과 풍운(風雲)의 변화를 바라보면 천도가 높고 멀어 만물을 모두 포용함을 알 수 있었고, 시골 마을을 걸으며 백성들의 노동(勞動)과 저잣거리의 삶을 관찰하면 인간 세상의 온갖 모습과 민심(民心)의 향배(向背)를 이해할 수 있었다. 소옹은 성세의 그늘 아래에서도 도리어 빈궁(貧窮)하게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있고, 권세가 사치(奢侈)스럽고 소시민은 곤궁(困窮)하여 빈부(貧富)가 고르지 않고 세상의 처지(處地)가 제각각임을 보았다. 또한 산하가 장려(壯麗)함 속에서도 가뭄과 수해(水害)의 재앙(災殃)이 남아 있어, 수해와 가뭄이 번갈아 일어나 생령(生靈)들이 고통(苦痛)받는 것을 보았다. 세상의 모든 만물(萬物)은 이처럼 음양(陰陽)의 바르고 어긋남이 있고 이로움과 해로움이 함께 생겨나니, 절대(絕對)로 원만(圓滿)한 것은 없고 영원(永遠)히 변하지 않는 것도 없었으며, 이는 역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소장(消長)과 화복(禍福)이 서로 의지(依支)한다는 이치와 완벽하게 부합(符合)하는 것이었다.

멀리 유람하는 길은 간고하고도 고독(孤獨)했다. 낮에는 백 리를 걸어가 발바닥에 굳은살이 배기고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썼으며, 매서운 햇살이 살결을 검게 태우고 비바람이 옷을 적셨다. 밤에는 황폐한 절이나 고묘(古廟), 산야(山野)의 부서진 초막(草幕)에서 잠을 자니 따듯한 옷과 음식이 없고 등불도 함께하지 않았으며, 오직 별과 달을 등불로 삼고 산하를 이웃으로 삼을 뿐이었다. 길을 가다가 도중에 산속의 폭우(暴雨)를 만나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고, 간혹(間或) 도적(盜賊)이나 유랑(流浪)하는 피난민(避難民), 저잣거리의 소란(騷亂)과 마주치기도 했으나, 소옹은 시종(始終) 심성이 안연(安然)하고 슬기로우 단 한 번도 조급(躁急)해하거나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비바람과 고난(苦難)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의 심경(心境)은 더욱 고요하고 투명(透明)해졌으며, 천지가 만물을 포용하고 대도가 온갖 모습을 용납(容納)함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보통(普通)의 선비들이 멀리 유람하는 것은 대부분(大部分) 산수를 즐기며 풍류(風流)를 부리고, 명사(名士)들과 교제하여 이름값을 얻으려 함이어서, 돌아오는 길에는 오직 눈으로 본 견문(見聞)과 몇 구절의 시문(詩文)만이 남을 뿐이었다. 그러나 소옹의 유람은 진정한 오도(悟道)의 도정이었다. 소옹은 길에서 마주친 산천의 형세와 사시(四時)의 기상, 인정(人情)의 차고 따듯함, 왕조의 흥망을 가슴속에 배운 음양(陰陽)의 수리(數理), 백가의 의리와 모조리 상호(相互) 대조하며 증명(證明)했다. 산천의 기복(起伏)을 보고 높고 낮음이 서로 형태(形態)를 이룬다는 이치를 깨달았고, 물의 왕복(往復) 흐름을 관찰하며 동(動)과 정(靜)이 서로 생겨나는 도리를 깨달았다. 풀과 나무가 번성(繁盛)하고 시드는 것을 보고 삶과 죽음이 순환(循環)하는 법칙(法則)을 깨달았으며, 세상사의 다스림과 어지러움을 보고 화복(禍福)이 교차(交叉)하는 순서를 깨달았다. 과거(過去) 책 속에서 모호(模糊)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역학의 의리와 천도의 현묘(玄妙)한 기틀이, 산하의 실제(實際) 풍경(風景)과 증명되는 과정(過程)에서 하나하나 투명하고 명백하게 밝혀져 마음에 와닿았다.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4일 웨이보 공개)

수년 동안 산하를 두루 겪으니, 소옹은 서재 안의 학문 다스림이 지녔던 좁은 그릇을 철저(徹底)히 돌파(突破)했다. 이전에 그가 지닌 학문은 종이 위의 의리이자 사변(思辨)으로 얻은 것이어서 정교(精巧)하기는 했으나 다분(多分)히 허공(虛空)에 뜬 면이 있었으나, 멀리 유람하고 돌아온 뒤의 학문은 산하에 뿌리를 내리고 인간 세상에 바탕을 두어 묵직하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생동(生動)함이 있었다. 소옹은 더는 천도와 인간 세상을 분리(分離)하여 보지 않았고, 차츰 천도는 만물의 근본(根本)이요 인간 세상은 천도의 발현(發顯)임을 통찰(洞察)하게 되었다. 사계절(四季節)의 흐름은 왕조의 흥망과 대응(對應)하고 음양의 소장은 인간 세상사의 변천과 부합하니, 천지의 수리와 인간 세상의 다스림과 어지러움은 본래(本來) 한 몸이며 근원이 같고 궤도(軌道)가 일치(一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투철(透徹)한 인지(認知)는 그의 학문의 마지막 관문(關門)을 완전히 뚫어주었으니, 그가 훗날 선천역학(先天易學)을 융합하고 천인(天人)의 도를 관통하는 데 있어 결정적(決定的)인 복선(伏線)이 되었다.

산하 만 리(萬里)의 길을 걸으니, 세상의 변화가 본심(本心)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소옹이 중화의 복판 땅을 모두 밟고 고금의 흥망을 남김없이 바라본 뒤, 다시 처음 길을 떠날 때의 자리를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예전의 서재에 갇혀 의혹을 품고 있던 청년 학자(學者)가 아니었다. 세월(歲月)의 풍서(風霜)는 그의 근골(筋骨)을 단련(鍛鍊)시켰고, 산하의 거친 변화는 그의 흉금(胸襟)을 묵직하게 만들었으며, 인간 세상의 온갖 모습은 그의 지혜(智慧)를 투명하게 열어주었다. 그의 안목(眼目)에는 더는 단편적(斷片的)인 문자(文字)의 의리만 보이지 않았고, 온전(穩全)한 천지의 그릇과 막힘없는 세상사의 규율(規律)이 보였다. 만 리의 먼 유람을 떠나 수많은 고난을 겪어내니, 소옹은 학식이 크게 성취(成就)되고 심성이 원만(圓滿)해져 오직 명스승 한 분이 마지막 한 겹의 현묘한 관문을 깨뜨려주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이로써 천고 역학의 완전히 새로운 기원(紀元)을 열 준비(準備)를 마쳤다.

### 第四章 负笈远游，遍历山河悟沧桑

北宋天圣八年，邵雍年方二十一岁。此时的他，居于共城已近十载，少年青涩尽数褪去，一身风骨澄澈清朗，胸中万卷诗书了然于心，百家义理融会贯通。十年耕读、十年思辨，让他挣脱了世俗治学的桎梏，却也让他深陷学问的瓶颈。书册所载，皆是前人所言、过往之理，可天地运化无时不新、世事变迁无有止息，死守故纸堆，终究是拾人牙慧、落于下乘。邵雍深知，纸上得来终觉浅，世间最高的大道，不在书斋笔墨之间，而在山河大地、古今兴亡、烟火百态之中。于是他辞别父母，收拾简单行囊，负笈佩剑，毅然踏上远游之路，决意遍历名山大川，访古寻迹，以天地为书、以岁月为证，亲悟世间沧桑大道。

临行前夜，邵古端坐茅屋，为儿子叮嘱箴言。半生隐居的邵古，看透世俗功名，深知其子志向非凡，绝非求仕求财之辈，故而无半句劝勉功名、叮嘱安稳的言语，只道：“学在心中，道在脚下。山河藏古今，风雨砺心性，勿畏路遥，勿惧艰难，所见皆学问，所历皆修为。”寥寥数语，通透豁达，契合邵家世代耕读悟道的家风。邵雍俯首拜别父亲，谨记教诲，心中笃定无比。他此去不为游学求名，不为结交权贵，只为踏遍华夏山河，对照史书古迹，印证天道兴衰，补齐自身学识的最后短板。彼时北宋承平盛世，海内晏然，无战乱纷扰，山河安稳，恰好为邵雍的远游提供了绝佳条件。他摒弃了寻常游学士子的浮华习气，不乘车马、不携仆从，一身布衣、一卷诗书、一柄短剑，徒步而行。一路轻装简从，风餐露宿，随性而往，无既定行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4일 웨이보 공개)

程，无刻意奔赴，遇山则观山，遇水则察水，遇古址则访兴衰，遇乡民则问风俗，以最赤诚、最纯粹的方式，拥抱这片华夏大地的万千气象。

邵雍远游的第一站，便是三秦故地关中。此地为秦汉盛唐根基，十三朝古都旧壤，曾是天下文脉与王气汇聚之地。昔日大秦一统天下，雄踞山河；汉唐盛世，万国来朝，文风鼎盛、武功赫赫。可千年流转、岁月更迭，待到北宋之时，关中故都早已褪去盛世荣光，宫阙残破、古迹荒芜，昔日繁华街市沦为寻常巷陌，巍峨宫墙只剩断壁残垣。邵雍立于长安故城之上，远眺秦岭连绵，近观渭水东流，看残砖碎瓦掩埋于荒草之中，心中百感交集。

他手持史书，对照古迹，一一印证古今变迁。秦据关中险固而一统天下，却因暴政速亡；汉承秦制、休养生息而盛世绵长，终因外戚宦官之乱倾覆；盛唐开放包容、万国归心，极盛之时睥睨天下，却由安史之乱骤然衰败，繁华落尽。一朝兴盛，必有积德蓄力之因；一朝覆灭，必有失道悖理之果。山河依旧，人事全非，山川形胜从未更改，唯人心治乱、世道兴衰往复循环。这一刻，书本中冰冷的治乱史实，化作眼前鲜活的沧桑变迁，邵雍心中豁然开朗，隐隐悟得盛衰有数、天道循环的深层义理。

自关中而出，他西走陇右，东行齐鲁，南涉江淮，北览河朔，遍历华夏核心腹地。登泰山之巅，观五岳独尊的巍峨气象，体悟天地尊卑、秩序井然之理；临黄河渡口，看九曲黄河奔涌东流，泥沙俱下、滔滔不绝，感悟大道包容、生生不息之态；入曲阜圣城，拜谒孔圣遗迹，观儒风传承千年不绝，明白圣贤立教、教化人心的万世功德；访河洛故地，探河图洛书发源之处，追溯上古易学的本源根脉。

每至一处名山大川、古迹旧址，邵雍皆驻足良久，沉思静悟。登临高处，观天地辽阔、风云变幻，便知天道高远、包罗万象；行走乡野，察百姓劳作、市井烟火，便懂人世百态、民心向背。他见盛世之下，亦有贫苦流离，权贵奢靡、小民困顿，贫富不均、世道参差；见山河壮美，亦有灾荒遗存，水旱交替、生灵受累。世间万事万物，皆有阴阳正反、利弊相生，无绝对圆满，无恒久不变，这与易学阴阳消长、祸福相依的道理完美契合。

远游之路，艰辛且孤寂。白日徒步百里，脚底生茧、满身风尘，烈日晒黑肌肤，风雨浸湿衣衫；夜里宿于荒寺古庙、山野破庐，无温热衣食、无灯火相伴，唯有星月为灯、山河为邻。途中亦曾遭遇山野风雨、迷途失路，亦曾偶遇盗匪流民、市井纷扰，可邵雍始终心性安然、从容淡定，从未有过半分焦躁畏惧。越是历经风雨坎坷，他的心境愈发沉静通透，愈发懂得天地包容万物、大道容纳百态。

寻常士子远游，多是游山玩水、附庸风雅，结交名士、博取声名，归途只剩一身见闻、几句诗赋。而邵雍的远游，是真正的悟道之行。他将沿途所见的山川形胜、四时气象、人情冷暖、朝代兴衰，尽数与心中所学的阴阳数理、百家义理相互印证。

观山川起伏，悟高低相形之理；观水流往复，悟动静相生之道；观草木荣枯，悟生死轮回之律；观世事治乱，悟祸福更迭之序。往日书中晦涩难懂的易学义理、天道玄机，在山河实景的印证下，一一变得通透明晰、落地入心。

数年遍历山河，邵雍彻底打破了书斋治学的狭隘格局。此前他的学问，是纸上义理、思辨所得，精巧却略显虚空；远游归来，他的学问扎根山河、根植人世，厚重且鲜活灵动。他不再孤立看待天道与人世，而是渐渐洞悉：天道为万物根本，人世为天道显化，四时流转对应朝代兴衰，阴阳消长契合人事变迁，天地数理与人间治乱本是一体、同源同轨。这一通透认知，彻底打通了他学问的最后一关，为他日后融汇先天易学、贯通天人之道埋下了关键伏笔。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4일 웨이보 공개)

山河万里行，沧桑入本心。当邵雍踏遍华夏腹地、阅尽古今兴亡，再度回望来时之路，早已不是当初那个困于书斋、心存困惑的青年学子。岁月风霜磨砺了他的筋骨，山河沧桑厚重了他的胸襟，人间百态通透了他的心智。他的眼中，不再是片面的文字义理，而是完整的天地格局、通透的世事规律。万里远游，历尽千帆，邵雍学识大成、心性圆满，只待一位名师点破最后一层玄关，便可直登大道顶峰，开启千古易学的全新纪元。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4일 웨이보 공개)

태원(太原) 인물(人物) 전기(傳奇)

부산전(傅山傳)

부산은 자(字)가 청주(靑主)이고 호(號)는 주의도인(朱衣道人)이며 태원(太原) 양곡(陽曲) 사람으로, 명말청초(明末淸初)의 당대(當代)에 보기 드문 박학다식(博學多識)한 대유학자(大儒學者)이자 고결(高潔)한 선비였다. 부산은 대대(代代)로 글을 읽는 유서(由緒) 깊은 문인(文人)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가학(家學)을 이어 받았으니, 타고난 자품(資品)이 영특(英特)하여 눈으로 한 번 보면 곧바로 외웠다. 젊을때 유학(儒學)에 마음을 쏟아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익히 읽고 제자백가(諸子百家)를 깊이 탐 구(探究)했으며, 역사책(歷史冊)의 고사(故事)를 널리 섭렵(涉獵)했다. 또한 글씨와 그림, 금석학(金石學), 의학(醫學), 시문(詩文)에 두루 통달(通達)하여 정교(精巧)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온갖 학문(學問)을 통틀어 아울러 삼진(三晉) 백 년 동안 보기 드문 전천후(全天候)의 인재(人材)였다. 그는 젊을 때 과거(科擧) 시험(試驗)에 응시(應試) 하여 문장(文章)의 광채(光彩)가 찬란(燦爛)하니 이름이 병주(並州)에 진동(振動)했으므로, 본래(本來) 공명(功名)을 얻어 조정(朝廷)에 나아가 관직(官職)을 지내며 세상을 호령(號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산은 성품(性品)이 본디 외롭고 높으며 깨끗하여 부귀(富貴)영화(榮華)를 탐(貪)하지 않았고 권세가(權勢家)에게 아부(阿附)하지 않았으며, 오직 학문을 닦아 몸을 기르고 세상을 구제(救濟)하여 백성(百姓)을 편안(便安)하게 하는 것으로 지향(志向)을 삼았다.

명나라 말기(末期)에 나라의 운수(運數)가 기울어 산하(山河)의 주인이 바뀌니 천하(天下)가 요동(搖動)했다. 부산은 조국(祖國)이 망(亡)하고 강토(疆土)가 찢어지는 것을 목격(目擊)하고 탄식(歎息)하며 벼슬길의 뜻을 완전(完全)히 끊어버렸고, 한 나라 신하(臣下)로서의 절개(節概)를 굳건히 지켜 새 왕조(王朝)에 복무(服務)하지 않겠다고 맹세(盟誓)했다. 청(淸)나라 조정에서 여러 번 천거(薦擧)하여 관직을 내리고 높은 벼슬과 많은 봉록(俸祿)을 주고자 했으나, 부산은 매번(每番) 병(病)을 핑계로 완강(頑強)히 거절(拒絶)하고 병주 산림(山林)에 은거(隱居)하여 벼룩을 입은 채 늙어 죽으니, 어지러운 세상에서 높은 선비의 절개(節概)를 지키고 결코 권세가에게 몸을 굽히지 않았다. 은거하여 지낼 때 부산은 화려(華麗)함을 버리고 학문에 전념(專念)하며 명나라 말기의 텅비고 소홀(疏忽)했던 학풍(學風)을 반성(反省)했다. 그는 공허(空虛)하게 의리(義理)만을 따지던 폐단(弊端)을 물리치고 가장 먼저 실학(實學)을 부르짖으며 학 문은 세상에 쓰여야 하고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主張)했다. 그의 고증(考證)은 엄밀(嚴密)했고 이론(理論)은 공평(公平)했으며 역대(歷代) 학문의 폐해(弊害)를 날카롭게 비판(批判)하여 삼진의 학풍을 혁신(革新)하니, 후세(後世)의 배 우는 이들을 깨우친 바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의 서예(書藝)는 속된 태(態)를 완전히 벗어 던져 필치(筆致)가 굳세고 예스러우며 오만(傲慢)한 뼈대가 천성(天性)으로 이루어져 주(周)나라와 위(魏)나라의 풍모(風貌)를 먹빛 사이에 녹여내었다. 그가 쓴 진사(晉祠)의 “난노(難老)”라는 두 글자는 기운(氣運)과 정취(情趣)가 웅중(雄重)하여 천하에 널리 퍼졌으니, 삼진 서예의 보배였다. 또한 의술(醫術)에 정통(精通)하고 본초학(本草學)의 맥리(脈理)를 깊이 알아, 어지러 운 세상에 시골 백성들이 가난(艱難)하고 병들어 의원이 없을 때 부산은 한평생 의술을 펼쳐 세상을 구제하면서 대가(代價)를 바라지 않고 빈곤(貧

##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4일 웨이보 공개)

困)한 환자(患者)들을 무수(無數)히 치료(治療)해 주었다. 부산은 의서를 저술(著述)하여 세상에 남겨 후세 의원들에게 은혜(恩惠)를 베풀었으니, 민간(民間)에서는 그를 높여 "삼진 땅의 의성(醫聖)"이라 불렀다. 그의 일생(一生)은 문장으로 삼진에서 으뜸이었고 서화(書畫)는 스스로 한 문파(門派)를 이루었으며 의술로 창생(蒼生)을 구제했고 절개는 고금(古今)을 밝게 비추었다. 어지러운 세상에 처(處)하여 비굴(卑屈)하지 않고 꺾이지 않았으며, 학문을 숭상(崇尚)하고 도리를 지키며 인애(仁愛)를 품고 세상을 구제했으니, 문인의 재주와 선비의 절개, 인자의 덕(德)을 한 몸에 모아 명청(明清) 교체기(交替期) 산서(山西) 제일(第一)의 명사(名士)가 되어 후세의 본보기가 되었다.

논(論)하여 가로되, 태원은 태행산(太行山)의 곁에 위치(位置)하여 분수(汾水)를 옷자락처럼 두르고 산하를 띠처럼 둘렀으니, 산천(山川)의 빼어난 기운이 모이고 땅의 기운이 두터워 예로부터 용성(龍城)의 빼어난 터라 일컬어졌고 현명(賢明)한 인재가 무더기로 배출(排出)되어 세대(世代)마다 인물이 끊이지 않았다. 상고(上古) 시대(時代) 대태(台駘)는 하천을 소통(疏通)시키고 토지(土地)를 안정(安定)시켜 병주 천년(千年)의 기틀을 열었으니 진(晉)나라 문명(文明)의 조상(祖上)이 되었고, 성성(盛盛)한 당(唐)나라의 적인걸(狄仁傑)은 충성(忠誠)을 굳게 쥐고 바른 길을 걸어 사직(社稷)을 붙잡고 당나라의 운수(運數)를 보전(保全)하여 신하의 충성을 다하고 창생(蒼生)의 인애(仁愛)를 품었다. 조송(趙宋)의 양업(楊業)은 북쪽 변방(邊方)을 수수(戍守)하다가 피를 흘리며 나라를 위해 죽어 진나라 사람의 충렬(忠烈)한 풍모(風貌)를 주조(鑄造)했고, 명청의 부산은 은거하며 절개를 지키고 학문을 닦아 세상을 구제하여 한 시대의 고결한 선비이자 큰 학자가 되었다. 네 분의 현인(賢人)이 처했던 시대는 서로 다르고 행(行)한 일은 제각각이나, 모두 태원의 물과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하의 영묘(靈妙)한 기운을 이어받아 덕을 세우고 공을 세우며 말을 남겼으니 각각 불후(不朽)의 자취를 남겼다. 한 지역(地域)의 문맥은 산수(山水)에서 근원(根源)하고 선현에게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여러 현인의 기개(氣概)는 병주 천년의 깊은 맥락(脈絡)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삼진의 충의(忠義)와 학문 숭상의 기풍(氣風)을 굳건히 이루어 내었으니, 아름다운 이름이 백 세대에 흐르고 영원(永遠)히 천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 傅山传

傅山，字青主，号朱衣道人，太原阳曲人，明末清初旷世通儒、气节高士也。山出身书香世家，幼承家学，天资卓绝，过目成诵。少时潜心儒学，熟读四书五经，深究诸子百家，博览史籍典故，且旁通书画、金石、医学、诗文，无所不精，囊括诸学，为三晋百年罕见之全才。其年少应试，文采斐然，名噪并州，本可凭功名入仕，驰骋朝堂。然傅山生性孤傲高洁，不慕荣华，不趋权贵，独以治学修身、济世安民为志。

明末国祚倾覆，山河易主，天下动荡。傅山目睹家国沦丧，感慨山河破碎，遂绝意仕途，坚守汉臣气节，立誓不仕新朝。清廷屡次征辟，欲授其高官厚禄，山皆托病固辞，隐匿并州山林，布衣终老，守乱世高士之节，绝不屈身权贵。隐居之时，傅山摒弃浮华，潜心治学，反思明末空疏学风，摒弃空谈义理之弊，首倡实学，主张学以致用、经世济民，考据严谨、立论公允，针砭历代学术弊病，革新三晋学风，启迪后世学人无数。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4일 웨이보 공개)

其书法脱尽俗态，苍劲雄古、傲骨天成，融晋魏风骨于笔墨之间。其所书晋祠“难老”二字，气韵浑厚、流传天下，为三晋书法瑰宝。且其精通医术，熟谙本草脉理，乱世之中，乡野百姓贫病无医，傅山常年悬壶济世，不计酬劳，救治贫苦病患无数，著医书传世，惠及后世医者，民间尊为“晋地医圣”。其一生，文章冠绝三晋，书画自成一派，医术救济苍生，气节震烁古今。身处乱世，不卑不屈，崇文守道、怀仁济世，集文士之才、高士之节、仁者之德于一身，是为明清之际山西第一名士，垂范后世。

论曰：太原居太行之侧，襟汾水、带山河，山川钟秀，地气浑厚，自古号龙城胜地，贤才辈出，代不乏人。上古台骀疏河定土，开并州千年基业，为晋地文明之祖；盛唐狄仁杰秉忠持正，匡扶社稷、保全唐祚，尽臣子之忠、怀苍生之仁；赵宋杨业戍守北疆，浴血殉国，铸晋人忠烈风骨；明清傅山隐居守节，治学济世，成一代高士鸿儒。四贤所处时代不同，所行之事各异，然皆根植太原水土，承山河灵气，立德、立功、立言，各垂不朽。一地之文脉，源于山水，成于先贤。诸贤风骨沉淀并州千年底蕴，铸就三晋忠义崇文之风尚，流芳百世，永续千秋。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14일 웨이보 공개)

### 《추명서(推命書)》19

일본어판(日本語版) 《추명서(推命書)》는 앵전호문(櫻田虎門, 사쿠라다 코몬)의 저작(著作)이다. 이 사람은 센다이번(仙台藩)의 유학자(儒學者)로 호(號)는 고부자(鼓缶子)이며, 역학(易學)과 오행학(五行學)을 겸하여 연구했다. 앵전호문의 《추명서》는 일본 문정(文政) 연간(年間, 약 1818년)에 간행(刊行)된 최초로 체계적(體系的)으로 중국(中國)의 사주추명(四柱推命)을 번역하여 소개한 전문서이다.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일본식 선장본(線裝本) 상·중·하 삼권본(三卷本) 형태로 채택(採擇)하였으니, 일본 사주추명의 초석을 다진 문헌(文獻)이다. 동시에 저자(著者)가 명리(命理)를 전문적으로 정통한 것이 아니었기에, 번역의 정밀도와 체계의 부합 면에서 역사적(歷史的) 한계가 존재한다.

**학술맥락:** 강호(江戶) 중기(中期)에 중국의 사주추명이 일본으로 전해졌고, 앵전호문은 자신(自身)의 유학과 역학 및 오행학적 축적을 결합(結合)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번역 소개를 완성(完成)하였다. 아울러 최초로 "단역(斷易)"을 "오행역(五行易)"이라 명명(命名)함으로써, 후속(後續) 일본 추명학 발전(發展)의 전문 용어(用語) 기초를 확립하였다.

**역사의의:** 일본 추명학의 시조(始祖) 작품으로 사주(四柱: 년, 월, 일, 시), 간지(干支), 오행 등 핵심틀을 명확(明確)히 하였으며, 명리 술수(術數)가 민간으로부터 학술적 시야(視野)로 들어오도록 추동(推動)하였다. 명치(明治) 이후 송본의량(松本義亮) 등의 학자들이 이 기초 위에서 "사주추명"이라는 명칭을 확립하였다. 연재(連載) 중 열 아홉 번째.

日文版《推命書》是櫻田虎門(さくらだこもん)的著作。此人为仙台藩儒学者，号鼓缶子，兼治易学与五行学。櫻田虎門的《推命書》是日本文政年間(約1818

年)刊行的首部系統譯介中國四柱推命的專著，以徐升《淵海子平》為底本，採用和刻線裝上中下三卷本形制，是日本四柱推命的奠基文獻，同時因作者非專精命理，存在翻譯精度與體系适配的歷史局限。

學術脈絡：江戶中期中國四柱推命傳入日本，櫻田虎門結合自身儒易與五行學積累，完成首部系統譯介，首次將“斷易”命名為“五行易”，為後續日本推命學發展奠定術語基礎。

歷史意義：是日本推命學的开山之作，明确了四柱(年、月、日、时)、干支、五行等核心框架，推动命理术数从民间传入学术视野，明治后松本义亮等学者在此基础上确立“四柱推命”名称。連載之十九。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14일 웨이보 공개)

자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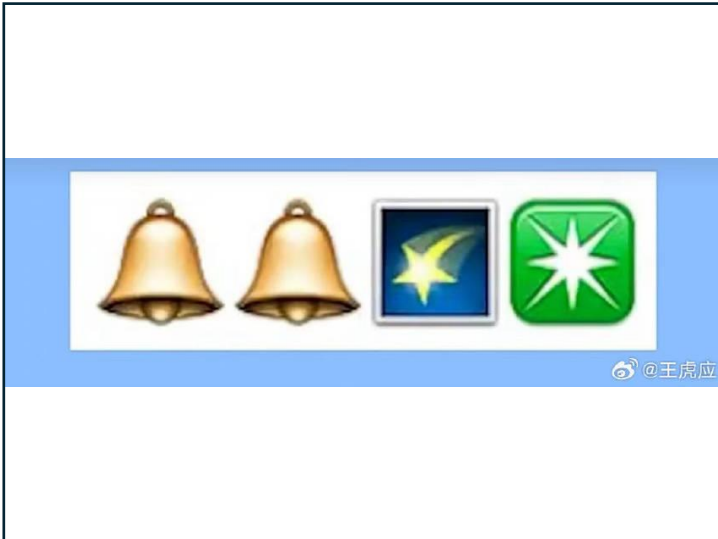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